

의복명칭의 분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복식문화 고찰

김 은 정*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the Clothing's Culture in Choseon Period with the Process of the Differentiating into Clothing's Names : Focused on the Names of Unisex Clothing

Eun-Jung Kim* · Soon-Che K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3. 3. 11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for examining the names of men's and women's clothing of Choseon period, which can be divided into the upper, the lower, and the outer garments based on *yu*襦, *go*袴, *po*袍 from the early period. Furthermore, amongst these various garments, this study shall define some kinds of clothing, which is shared its name and its use by both men and women, as the unisex clothing. Lastly we analyze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is unisex clothing.

With the names of clothing in Choseon period, we could understand about the difference of clothing's development by the names for the upper, lower, and outer garments as gender. And we also found the names for the unisex clothing in that period.

The names of unisex clothing in Choseon period can roughly be divided into three garments; the upper, the lower, and the outer. Each category can also be subdivided into three: i. e. the upper garments into *jeogori*赤古里, *hansam*汗衫, *sama*衫兒, *jeoksam*赤衫, *donguida*胴衣襖, and *godo*古都; the lower garments into *go*袴, *gonja*禪子, and *baji*[*paji*把持, *pachi*把赤]; and the outer garments into *jangu*長衣, *baeja*背子, and *juui*周衣. Furthermore, we can recognize that the shapes and uses of clothes in that period had been represented differently between the men's and women's.

Key words : *yu*襦 · *go*袴 · *po*袍(유고포), the names of clothing(의복명칭),
the names of unisex clothing(남녀공용의복)

I. 서론

우리 나라의 기본 의복구성인 상의, 하의, 외의는 상고시대에는 襦·袴·袍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던 것이며, 이들은 당시 남녀가 서로 명칭과 형태를 공유하며 함께 입었던 의복이다. 그러나 각각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복식의 成長 및 流轉에서 나타나는 계열 분화의 원칙에 걸맞게 하나의 母型에서 同系異種의 것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¹⁾ 조선시대에는 이들에 대한 명칭이나 종류, 형태들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특히 동일형식의 피복이 장기간에 걸쳐서 존속하는 경우에 더욱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 명칭분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본복식의 종류별 분화와 성별에 따른 발전의 내용 및 그 사회의 성격이나 의복문화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의복을 상고시대의 襦·袴·袍에 준하여 상의류, 하의류, 외의류로 나누어 각각 이들 품목에 해당하는 의복의 명칭을 선행 연구²⁾와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남녀에 따른 각각의 명칭들을 통해 해당시기 의복의 분화, 발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처럼 동일 품목의 의복에서 명칭을 달리 하는 남녀 의복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가 명칭을 공유하면서 함께 착용한 의복들이 있다. 따라서 이를 ‘남녀 공용의복’으로 정의하여 그 의복들의 어원과 형태, 착용 양태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요인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남녀 의복의 발달 상황

상의·하의·외의의 조합은 상고시대 우리 나라의 기본 의복 구성으로 이에 따라 의복의 발달상황을 이들 품목에 대한 조선시대 의복 명칭들의 분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의류

1) 상의를 지칭하는 의복명칭

조선시대의 문헌에 보이는 상의류의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衣, 襦衣, 汗衫, 衫兒와 함께 赤古里, 短赤古里, 赤衫(的衫), 串衣, 胡袖(好袖), 虛胸, 小古衣, 小襖子, 胴衣襟, 褰肚, 袂隔音, 腋尔只(肩尔只), 고도(古都), 唐衣, 唐古衣, 唐赤衫, 唐赤古里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문에 제시한 <표 1>은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자료를 중심으로 상의류 명칭과 기록된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襦는 상고시대부터 일반적으로 상의를 지칭하는 명칭이었으나, 수식어로서 의복명 앞에 사용되었을 때는 종종 숨을 둔 의복을 의미³⁾하기도 한다. 赤古里라는 용어는 조선 전후기에 걸쳐 남녀의 상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短赤古里라는 용어는 17-18세기의 문헌에 여자의 상의명으로 한정되어 등장한다. 短赤古里는 대체로 附金 등, 화려한 衣次로 된 특정한 상류층 여성의 짧은 저고리라는 견해가 있는데⁴⁾, 18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는 특히 한 때 상류층에서의 여자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그 특징이 강조되어 나타난 의복명으로서, 附金 등의 화려한 장식은 특정신분에서 의복을 아름답게 꾸몄던 일종의 장식성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衫兒, 汗衫, 赤衫은 남녀에게 거의 모든 시기에 사용된 명칭이고, 小古衣는 여자에게만, 胴衣襟(服)은 국말 衣襟件記, 衣服件記의 기록⁵⁾에서 왕, 왕세자, 옹주의 상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궁중의복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또 褰肚는 상례용의 한 품목으로 조선시대 전후기에 걸쳐 남녀에게 모두 사용되었으나⁶⁾ 의복이라기 보다는 襲具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적인 의복명칭으로는 남자에게만 사용되었다고 하나 再考가 필요하다. 虛胸은 조선전기 짧은 기간동안 남자 상의류 중의 하나로, 胡袖는 조선 전후기를 통해서 여자 上衣 중 하나의 의복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虛胸과 胡袖에 대해 구남옥(2001)⁸⁾은 세조 6년의 “胡袖卽鶴袖虛其胸”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이들이 동일한 의복이라고 설명하

고 있으나,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밖에 고도(古都)는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6세기에는 남자의 의복류에, 19·20세기는 여자의 의복류에 나타나고 있어, 남녀에게 기록된 시기는 다르지만 자료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함께 사용된 명칭으로 생각된다. ‘唐⁹⁾’이 특정 의복의 수식으로 붙은 唐赤古里, 唐赤衫, 唐汗衫 등은 여자의복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복의 화려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견마기는 거드랑이를 막은 형태의 의복을 지칭하는 것¹⁰⁾으로 여자에게만 나

타나고 있다.(표 1참고)

이상으로 본 상의류의 명칭들은, 조선시대 전기 간에 걸쳐서 남녀 공용, 혹은 남녀 독립적으로 쓰이면서 명칭분화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남자의 상의류 명칭으로만 사용된 의복명은 의복의 정의가 미흡한 虛胸, 裹肚에 한하나, 여자에게만 사용되었던 상의류의 명칭들에는 串衣, 短赤古里, 胡袖, 小古衣, 견마기, 회장저고리와 그밖에 ‘唐’자가 붙은 唐赤古里, 唐赤衫, 唐汗衫 등으로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상의류 명칭

명칭	시기	세 기						출 처 / 비고
		15C	16C	17C	18C	19C	20C	
赤古里 (저고리/ 저구리)	男	저구리						조선왕조실록(세종, 성종, 중종),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빈전혼전도감의궤(의인왕후, 인목왕후), 국혼정례, 상방정례, 가례도감의궤(1627, 1681, 1696, 1702, 1718, 1727, 1744, 1759, 1819, 1837, 1851, 1866, 1906) 승정원일기(경종, 순조), 원행음묘정리의궤, 순화궁집초, 불기(1893, 1898, 1901)
	女	저구리						
短赤古里	男							가례도감의궤(1638, 1627, 1651, 1671, 1696, 1718, 1727, 1744)
	女							
赤衫 (的衫)	男							조선왕조실록(성종, 중종),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빈전혼전도감의궤(1600, 1632, 1680, 1683, 1701), 효순현빈빈궁혼궁도감의궤(1751), 발기(1892, 1893, 1900, 1901)
	女							
汗衫	男							조선왕조실록(태종, 세종, 단종, 세조, 연산군, 선조), 빈전혼전도감의궤(1632, 1649, 1720, 1751, 1805, 1834, 1895), 빈궁혼궁도감의궤(1822, 1830), 가례도감의궤(1627, 1638, 1671, 1701, 1744, 1759, 1819, 1882, 1906), 발기(1900, 1906)
	女							
衫兒	男							조선왕조실록(단종, 세조, 성종, 광해군), 朴通事諺解, 국혼정례, 상방정례, 가례도감의궤(1627, 1638, 1651, 1681, 1727, 1744, 1759, 1802, 1819, 1837, 1882, 1906)
	女							
串衣	男							조선왕조실록(선조, 인조, 영조), 빈전혼전도감의궤(인목왕후), 가례도감의궤(1718, 1759, 1762, 1802, 1819, 1837, 1851, 1866, 1882, 1906), 국혼정례, 상방정례,
	女							
胡袖 (好袖)	男							조선왕조실록(세조), 가례도감의궤(1627, 1638, 1651, 1671, 1681, 1702, 1727, 1744, 1802, 1819, 1844, 1851, 1866, 1882, 1906), 국혼정례, 상방정례
	女							
虛胸	男							조선왕조실록(태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일기(1495)
	女							
小古衣	男							의대발기(1882), 의복발기(덤미정도순비마마), 의차발기(왕대비던가래시)
	女							
胴衣襖 (동의대, 동의복)	男							의대·의복발기(1882, 1898, 1900, 1904, 무오스월)
	女							

명칭	성별	세기						출 처/ 비고
		15C	16C	17C	18C	19C	20C	
裹肚	男							조선왕조실록(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빈전혼전도 감의괘(1659, 1674, 1701, 1720, 1730, 1757, 1800, 1805, 1821, 1834, 1904), 가례도감의괘(1651, 1671, 1696, 1702, 1744, 1801, 1819, 1837, 1844, 1851, 1882, 1906) 국혼정례, 상방정례, 상례비요, 박통사언해, 의복발기(내안당이귀인상수의침공가불귀)
裹肚	女			빈전도감	빈전도감	빈전도감	빈전도감 / 의복발기	
古都 (고도)	男		古都 (고도)					조선왕조실록(선조26년 5월29일),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갑오오월단오의복발기(1834), 병술오월이십일의차불귀(1886), 경조칠월친왕자가봉작시의복발기(1900)
古都 (고도)	女				고도	고도		
唐(衣, 古衣, 汗衫, 赤衫, 赤古里)	男							조선왕조실록(광해군, 숙종, 영조, 정조), 광해군일기(2년 5월7일), 원행을묘정리의괘, 순화궁절초, 의대·의복발기(1882, 1893, 1900, 1903, 1906, 1907)
唐(衣, 古衣, 汗衫, 赤衫, 赤古里)	女							
袂隔音, 腋尔只 (肩尔只)	男							조선왕조실록(세종), 빈전혼전도감의괘(의인·인목왕후), 원행을묘정리의괘, 순화궁가례시절차, 의차·의복발기(1789, 1882, 갑오스월, 입자십월)
袂隔音, 腋尔只 (肩尔只)	女							

* 장인우 (2002). 조선중기 의생활 어휘에 대하여 - 순천김씨묘 언문간찰을 중심으로-. 복식, 52(3).

2) 남녀 상의류의 발달 내용

조선시대 상의류에 사용된 명칭들을 남녀 따로 분류해 보면, 여자의 상의류를 지칭하는 명칭이 대단히 많고 그 중 赤古里, 赤衫(的衫), 汗衫, 衫兒, 胴衣襟, 고도(古都)만이 남녀에게 모두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분류된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공용의 상의류 명칭은 여자의 다양한 의복명 안에 일부로 포함되어 나타나는데, 이처럼 여자의 상의류를 지칭하는 명칭이 많았음은 여자의 상의류가 남자에 비해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 남녀공용 상의류 명칭의 도식화

남자	남녀	여자
虛胸, 裹肚?	赤古里, 胴衣襟, 赤衫(的衫), 汗衫, 衫兒, 고도(古都)	串衣, 胡袖(好袖), 小古衣, 小襖子, 袂隔音, 腋尔只(肩尔只), 唐衣, 唐古衣, 唐赤衫, 唐赤古里

2. 하의류

1) 하의를 지칭하는 의복명칭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下衣類 명칭에는 袴(單袴, 短袴, 袂袴·袴袴, 襦袴, 袴子), 禪子(犢鼻褌, 復

禪子, 單禪子, 復禪子, 鮒魚禪子), 裏衣(袂裏衣, 單裏衣), 襪裙(單襪裙), 把持(襦把持, 袂把持, 單把持) 등이 있다. (표 3)

袴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남녀의 하의를 대표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襪裙은 여성의 겉옷 바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하는데, 이는 騎馬時 착용한 특수의복이었다. 裏衣는 일반적으로 남녀에게 모두 사용된 內衣를 지칭하는 용어이나, 특히 여자의 경우¹¹⁾에 종종 치마와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속옷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던 바지류를 지칭했던 용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쟁이는 '古長袴'라는 명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¹²⁾, 『帝國新聞』 1900년 8월 2일자 광고란에 '열살먹은 간란이란 계집으희가 베 당홍적삼에 베 치마 고쟁이에 나무신 신고...'라는 아이를 찾는 문구에서 당시 '고쟁이'의 사용예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속속곳, 단속곳 등과 함께 조선말 여자에게 사용된 속옷류였던 것이다. '把持'는 남자의 바지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조선 초부터 사용되었으나, 『嘉禮都監儀軌』, 『尙房定例』, 『國婚定例』에는 여자의 襪裙에 대응한 남자의 하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바지'라는 용어의 문헌 표기는 16세기 순천김씨 언문간찰, 17세기 현

풍곽씨 서간류¹³⁾, 국말 의복발기 중에서 보이며 남녀에게 모두 쓰였고, 이밖에 ‘봉디’는 바지를 지칭하는 궁중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袴로 표기되던 남녀의 하의류에 관한 명칭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 외에도 남녀 각각에 표현되는 명칭이 많아지고, 상의류와 같이 하의류에 관련된 명칭들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치마의 裏衣로서 바지를 겹쳐 입었던 당시 여성의 옷차림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 남녀공용 하의류 명칭의 도식화

남 자	여 자
(袷·袷·短·褌)袴 赤袴, 褌子, 犢鼻褌, (褌·單)把持	襪裙, 單襪裙 鮒魚褌子, 裏衣, 袷裏衣, 單裏衣 속속곳, 단속곳
바 지 (單)袴, 褌子	

<표 3> 하의류 명칭

명칭	성별	세 기						출 처/ 비고
		15C	16C	17C	18C	19C	20C	
袴	男							조선왕조실록(單袴, 袷袴, 袷袴), 사레편람(袴, 單袴), 오주연문장전산고(單袴, 短袴, 褌袴), 燕輶直指(袷袴), 빈전혼전도감의례
	女							
襪裙	男							조선왕조실록, 국혼정례(單襪裙), 상방정례(單襪裙)
	女							
褌子*	男	실록	실록	실록	실록			조선왕조실록, 조선여속고(동상기:1791)
	女							
裏衣 (니의)	男							조선왕조실록(單裏衣, 褌裏衣), 국혼정례(袷, 單), 상방정례(袷, 單), 件記(덕혜옹주 의복발기-1917)
	女							
把持 (把赤)	男							조선왕조실록(세조, 성종), 국혼정례(褌, 單), 상방정례(袷, 褌, 單), 가례도감의례(17-19)
	女							
봉디 (奉只)	男							件記(영왕 의복발기, 1899, 1904, 1905, 1906) 件記(임오가례시빈궁마누라의대:1882, 병오가례시마마의대:1906)
	女							
바지	男		바디	바지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현풍곽씨 서간류(17C), 件記(1897, 1898, 1916, 1917, 1918)
	女		바디	바지				
단속곳	男							춘향전, 件記(임오가례시빈궁마누라의대:1882, 1916, 1917, 덕혜옹주 의복발기:1918)
	女							
고쟁이	男							제국신문(1900년 8월 2일)
	女							

2) 남녀 하의류의 발달 내용

하의류를 지칭하는 남녀 공용의 명칭으로는 ‘(單)袴’와 ‘褌子’가 있었으며, ‘바지’라는 우리말 표기는 16세기부터 남녀에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자의 하의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속옷을 지칭하는 ‘裏衣’라는 용어가 일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여자에게는 바지가 치마 속에 입는 속옷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두 개이상의 속옷 명칭¹⁴⁾이 함께 기록되고 있고, 속속곳, 단속곳, 너른바지 등 裏衣로서 분화한 여자바지의 다양한 명칭이 있음을 감안하면, 속옷으로 분화 발달한 여자 바지의 발달상황과,

3. 의의류

1) 의의를 지칭하는 의복 명칭

조선시대 남자의 外衣類를 지칭하는 명칭들은 前 시대의 袍, 답호(褶胡, 褶護), 帖裏, 背子, 半臂 외에도 腋注音, 直領, 深衣, 弊衣, 中赤莫, 道袍, 長衣, 周衣, 戰服, 快子, 背子 등 다양하다.(표 6) 外衣類는 이처럼 남자에 있어서 팔목할 만큼 다양함을 보이는데, 외출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冠帽와 함께 갖추어 입어야 할 의관정제의 기능으로 중요한 품목이었다.

의의류의 명칭들을 살펴보면, 임진, 병자 양란

전 시기에는 반비 계통의 답호와 상하연철의 철릭과 액주음을 편복의 포로 착용하였으며, 이후 道袍와 '트임이 있는 옷'인 大斃衣·小斃衣·中赤莫·鶴斃衣 등의 斃衣類가 등장하면서 남자의 의의류는 더욱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자의 것으로는 그 명칭이 長衣, 背子, 周衣로 그 명칭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2) 남녀 의의류의 발달 내용

의의류에 사용된 명칭들을 남녀 따로 분류해 보면 長衣, 背子, 周衣만이 남녀가 한 때 명칭을 공유하였던 남녀공용의복이었음이 확인된다. 즉 여자의 의의류의 명칭은 남자의 다양한 의의류에 포함되어 그 중 일부로 나타난다. 이는 곧 여자의 의의

류의 발달이 저조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자용 의의류의 종류별 분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의의가 남자에게 있어서는 겉옷으로서의 중요한 품목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남녀공용 의의류 명칭의 도식화

남자	남녀
腋注音, 帖裏, 답호(褶胡, 褶護), 直領, 道袍, 深衣, 戰服, 快子, 斃衣, 中致(赤)莫, 小斃衣, 大斃衣	長衣 背子 周衣

<표 6> 의의류 명칭

명칭	시기	세기						출 처/ 비고
		15C	16C	17C	18C	19C	20C	
帖裏 (貼裡, 天翼, 天益)	男		탈릭, 철릭					박통사, 조선왕조실록,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현풍곽씨 서간류(17C), 가례도감의궤, 승정원일기, 불기(병오 영친왕탄일대의대불기 :1906)
답호 (褶胡, 褶護)	男							조선왕조실록,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燃藜室記述
戰服, 快子	男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景宗案梓宮衣衾), 進饗儀軌, 불기
直領	男		덕령					조선왕조실록,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燃藜室記述, 현풍곽씨 서간류(17C), 증보문헌비고
腋注音	男							조선왕조실록 가례도감의궤(1600-1900년대)
道袍	男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사례편람, 燃藜室記述, 贈禮曹判書郭越道碑銘并序, 五洲衍文長箋散稿, 증보문헌비고, 조선상식문답
深衣	男							조선왕조실록(세종, 성종, 중종, 효종, 순조, 고종), 사례편람, 가례집람, 사례편람, 燃藜室記述, 지봉유설, 五洲衍文長箋散稿, 增補文獻備考
斃衣 (창의, 창옷)	男							조선왕조실록, 목민심서, 매천야록, 五洲衍文長箋散稿, 불기(의화군 관례시:1892), 조선상식문답
中致(赤)莫	男		등치 막	등치 막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경종),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현풍곽씨 서간류(17C), 조선여속고, 조선상식문답
小斃衣	男							正祖 顯陵閣 整理儀軌, 조선여속고
大斃衣	男							五洲衍文長箋散稿(권4, 복식재량변증설)
長衣	男 女		당옷 (순천김)					조선왕조실록(세조, 중종, 영조, 정조), 순천김씨묘 언문간찰(16C), 승정원일기(순조), 五洲衍文長箋散稿, 놀재집
背(褙)子	男 女							고려사(輿服志), 조선왕조실록(태종, 중종, 영조, 정조), 승정원일기(경종), 상례비요, 사례편람, 가례언해, 件記
周衣	男 女				두루막 이(중간 노걸대 언해)	두루 막이 (아학 편)		승정원일기 권 77, 조선왕조실록(순조 30년 4월17일), 증보문헌비고(79, 禮考, 章服), 만기요람, 매천야록(1864-1910), 중간노걸대언해(1795 추정), 아학편, 불기, 제국신문, 조선상식문답

Ⅲ. 조선시대 남녀 공용 의복명칭

조선시대 남녀에게 공동으로 사용된 의복명칭들을 중심으로 명칭의 유래와 형태,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上衣類

1) 저고리[赤古里]

현재 일반적으로 상의를 지칭하는 저고리는 조선 초부터 '赤古里'로 표기되고 있다. 김동욱¹⁵⁾은 '몽고어로 상의를 'čagadəkčī'라고 하는바 赤古里는 이 訛音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여 그 어원을 몽고어에서 찾고 있는데, 『蒙語類解補編』 服飾補에 '襖 동옷 ○ 처거덕' 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김동욱의 견해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몽고어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赤古里的 용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세종 2년(1420)의 元敬王太后 遷奠儀式에서 「…紅段子赤古里…」¹⁶⁾등을 진열한다는 기록인 바, 우리의 상의는 당시에 이미 저고리에 유사한 발음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자의 상의에 赤古里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는 成宗代의 「…體短袖窄甲赤古里…」¹⁷⁾가 그 첫 기록으로서 군사의 상의로 기록되어 있다. 1500년대 의생활 용어를 알 수 있는 순천 김씨(1500년대 생몰 추정)묘 언문 簡札¹⁸⁾에는 남녀의 상의를 저구리로 표기하였는데, 이로써 조선초 한자로 표기된 赤古里는 한글 사용 후 우리말의 발음과 유사한 저구리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노걸대의 최초 번역본인 『번역 노걸대』¹⁹⁾에는 '襖子'를 '저구리'로, 『譯語類解』²⁰⁾에는 '小襖子'를 '저구리옷'이라 해석하고 있고, 赤古里는 『四禮便覽』²¹⁾에 袍襖를 속칭 赤古里라 하고, 『五洲衍文長箋散稿』²²⁾에는 襦는 短衫이며 속칭 赤古里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이전에 사용된 상의류의 명칭들은 점차 赤古里 혹은 우리말 표기인 '저구리', '저구리'에 점차 混入되어 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저고리(저구리,

저고리)에는 다시 동 저고리, 자근저고리²³⁾, 긴저고리²⁴⁾, 당저고리 등의 몇 가지 수식어가 붙어 특수한 형태, 용도의 상의를 지칭하는 저고리의 명칭이 등장함을 본다.

그러나 이처럼 저고리가 남녀의 상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형태나 기능면에서는 남녀 차이를 보인다. 즉 조선초기의 남녀 저고리는 목판 깃, 직배래 등 형태에서의 공통점은 발견되지만, 사용된 衣料는 여자 저고리가 남자에 비해 화려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후 여자의 저고리는 깃에 있어 당코 깃, 등근 깃의 변화와 점차 저고리의 길이가 극도로 짧아지는 변화를 보이는 반면, 남자의 저고리는 칼 깃의 변화 외에는 커다란 변화 없이 말기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여자저고리 형태에서 변화의 폭이 더 컸던 이유는 남자의 저고리가 외의[袍]의 裏衣였음에 반해, 여자의 저고리는 남자의 외의에 대응하는 표의였다는 기능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變化의 근거에는 당시 자유로운 의복 착용으로 유행을 선도하였던 특정계층의 기녀복식이 있었으며, 이는 점차 짧아지는 조선 후기 여자저고리의 변화에 영향을 더해 주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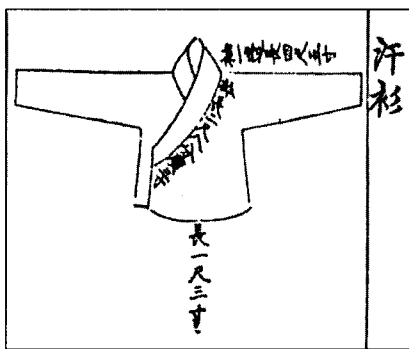
2) 赤衫, 汗衫, 衫兒

'衫'은 衣를 통칭하거나, 홑옷을 지칭하는²⁵⁾ 용어인데 조선시대 남녀가 함께 사용한 명칭은 赤衫, 汗衫, 衫兒였다.

汗衫에 대하여 『家禮考證』에는 '한왕 고조가 항우와 전쟁을 할 때 중단에 땀이 배어 이를 汗衫이라 改名하였으며, 이는 귀천이 통용하였다²⁶⁾고 하였으니 이에서 汗衫은 애초에 중단이라고 하는 홑겹의로서 땀받이 속옷이었음을 알 수 있다. 『樂學軌範』에도 그 명칭과 함께 그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는 독립된 의복명으로도, '소매 끝에 달린 천'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圖1, 2참고) 그런데 『譯語類解』에는 '솜땀기적삼²⁷⁾'으로 해석되어 적삼과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衫兒는 홑옷을 지칭하는 '衫'에 명사를 표현하는 중국식표기법인 '兒'가 붙은 의복명²⁸⁾으로, '속적삼²⁹⁾ 혹은 '홀저고리로 옆솔기가 트이도록 봉제한

저고리³⁰⁾로 해석되고 있다. 赤衫은 1302년 佛腹藏 중 上衣의 깃에 '綃脊衫'이라 쓰여져 있는데, '脊衫'은 '赤衫', '的衫'으로도 표현된다.³¹⁾ 17세기에는 衫兒, 汗衫을 '쌈빳기적삼'으로 이해하고³²⁾, 『朴通事諺解』³³⁾에는 '衫兒袴兒裹肚等裏衣'를 '적삼고의과肚속옷'으로 이해하여 삼아는 적삼으로서, 속옷이라 해석하고 있다.



<圖 1> 약학계범의 한삼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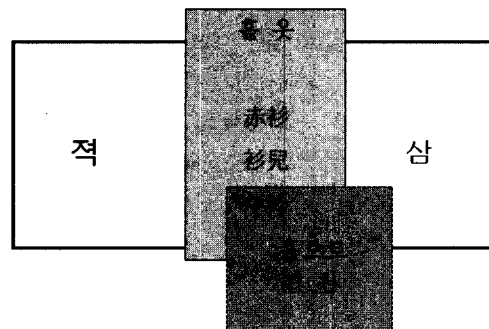
慈慶殿進爵整禮儀軌의 한삼

또 赤衫과 汗衫은 의인·인목왕후 빈전혼전도감 의궤에 衣料를 달리하여 併記되고, 衫兒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 가례도감의궤에서 왕의 의복에, 衫兒·汗衫은 왕비의 의복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조장열후(1638) 가례도감의궤의 왕비복에는 삼아·활삼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가례도감의궤의 왕비복에는 삼아·활삼삼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아'와 '한삼'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표 7과 같이 赤衫은 우리말의 표기로 汗衫, 衫兒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赤衫, 汗衫, 衫兒는 홑옷이라는 특징 이외에 문헌의 기록으로는 그 형태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출토 유물의 보고서³⁴⁾에서는 일반적으로 홑으로 된 의복류를 赤衫, 汗衫으로 분류하였고, 특히 홑옷에 소매가 길게 달려있는 의복을 汗衫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7> '衫'의 분류



3) 고도(古都)

고도는 적삼에 대응하여 궁중에서 사용된 의복 명칭으로, 술기를 곱고 넓적하게 한 의복³⁵⁾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순천김씨묘 언문 간찰(1500년대)³⁶⁾에 상의류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어 궁중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용되었던 의복명칭임을 알 수 있다.

고도에 관한 기록은 국말 『불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갑오오월단오의복불귀(1834)』³⁷⁾에는 '적삼', '짜기', '고도'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독립된 의복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항상 적삼과 함께 표기되어 있어 속옷의 한 종류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 『경조칠월친왕즈가순빈즈가봉작시의 보불귀(1900)』³⁸⁾에는 '짜기당적삼', '저고리', '고도', '적삼'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짜기'라는 명칭이 하나의 수식어로 사용되어 특정한 형태나 바느질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낙선재의 상궁은 "고도는 술기가 넓적한데 비하여 짜기당한삼은 도련이나 소매부리 술기를 아주 실날같이 가늘게 하기 위하여 보통 적삼과 같이 두 번 쥐는 대신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에서 돌돌 말아가면서 감쳐 박는다³⁹⁾”라고 하여 ‘적삼’, ‘짜기’, ‘고도’가 바느질 방법에 의해 구분된 의복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는 민간에서부터 궁중에까지 사용된 용어로 상의류 중에서도 홑으로 된 속옷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국말 『발기』에는 여자에게만 사용되고 있음이 특이한 점으로 발견되었다.

2. 下衣類

1) 袴, 禪子

袴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하의를 지칭하는 한자어로서 사용되어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殯殿魂殿都監儀軌』 등에 나타나고, 홑일 경우 單袴·短袴, 겹일 경우 袂袴·袷袴, 솜을 두어 만든 의복은 ‘襦袴’ 표기되었다.

禪子は 사진 상에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지은 홑 고의로 조선시대 흔히 농민들 사이에 노동복으로 사용되었고, 주로 베로 지어 입었다⁴⁰⁾’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⁴¹⁾에 禪子は 왕 혹은 관직자의 병상, 혹은 급한 상황에서서의 차림에 등장하고 있고, 『朝鮮女俗考』⁴²⁾의 婚姻論財에 남자는 複禪子, 單禪子가, 여자는 鮒魚禪子, 複禪子가 褌子와 함께 표기된 것을 보면 속옷의 한 용도로서 사용된 의복을 지칭하는 의복명임을 알 수 있다.

2) 바지[把持]

현재 일반적으로 하의를 지칭하는 명칭인 바지는 한자로는 ‘把赤’, ‘把持’라고 표기했었는데, 김동욱은 ‘조선초기 정인지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⁴³⁾’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문헌 기록을 참조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把赤’은 세조(1460)⁴⁴⁾때 기록되었고, 이어 成宗(1479)⁴⁵⁾때도 나타나 조선초기부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이후의 기록에는 ‘把持’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把赤⁴⁶⁾’은 把持보다 먼저 사용된 용어로서, 赤→持에로의 표기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把는 [ba, ba]로, 赤이나 持는 모두

[chi]로 발음되어 바지의 취음으로 해석된다. 이는 1500년대 ‘바디⁴⁷⁾’로 기록되면서 남녀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바지의 한자표기인 ‘把赤’, ‘把持’는 주로 『嘉禮都監儀軌』, 『尙方定例』, 『國婚定例』에 남자의 하의를 지칭하는 용어로만 표기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국말 한글로 표기된 의대불기, 의복불기에는 ‘把赤’과 ‘把持’를 남녀 모두 ‘바지’로 기록하였고, 왕·왕세자인 경우 ‘봉디(奉只)’로도 표기되었으며, 여자 바지⁴⁸⁾의 경우에는 속옷을 지칭하는 속속곳, 단속곳, 핫바지, 너른바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화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의류의 명칭은 조선 초부터 남자는 바지의 한자표기인 把赤·把持·바지로, 여자는 裏衣·바지 등으로 표기되는 점이 다르며 이와 함께 남녀 바지도 각기 다른 형태로 변화하였음이 발견된다.

근래 출토된 바지 유물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남녀 바지의 유형은 1600년대를 전후로 그 형태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⁴⁹⁾ 즉, 1600년대 이전의 바지는 남녀가 같은 유형의 밑이 트인 개당고형 바지와 밑이 막힌 함당고의 형태를 함께 착용하였고, 以後의 時期에는 남자는 보다 기능적이고 옷감 재량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복바지의 형태로, 여자는 앞의 두 유형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가 나타난다. 이는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실린 바지 재량에서도 남자 옷은 ‘袴十四尺 內貢十四尺~ 單袴十四尺’이라 하고, 여자 옷에는 ‘袴表裏三十尺 單袴十三尺 廣單袴十七尺⁵⁰⁾’라고 하여, 남녀의 옷감 소요량이 다름과, 또한 여자의 바지가 남자에 비해 옷감이 많이 소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1600년대를 전후로 한 사복바지의 등장은 조선시대의 사회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임진·병자란 등의 전란이 의복을 보다 기능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더불어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보다 경제적인 바지 구성법을 추구하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조선시대 바지는 남자는 袴·單袴를, 여자는 袴·單袴·廣單袴 등이 함께 표기되고, 출토유물에서도 바지류가 겹쳐 나오으로써 남녀 모두 겹쳐 입는 착용법을 보이는데, 그 용도에 있어서는 남자는 겹옷, 여자는 치마 속에 입

는 속옷으로 발달하였다.

3. 外衣類

1) 長衣

長衣는 곧 장옷이라 하여, 일반적으로는 조선조 여자의 내외용 쓰개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⁵¹⁾ 그러나 조선 초의 기록을 보면 장의는 쓰개용이라기 보다는 의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자 長衣 착용에 대하여 世祖 二年에는 ‘今國中女子 喜着長衣 若男子然 或以長衣着於衣裳之間 成爲三層...⁵²⁾’ 이라 있고, 中宗 十七年에도 ‘...庶人女用白苧布爲長衣與裳者...⁵³⁾’ 라고 하여 여전히 의복 명으로서의 長衣가 확인되나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없다. 그런데 『五洲衍文長箋散稿』⁵⁴⁾의 기록에는 장의가 당시 내외용 쓰개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京都雜誌』⁵⁵⁾에도 명칭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외용으로서의 복식이 등장하고 있어, 이 또한 내외용으로 사용된 長衣가 아니었을까 의심된다. 따라서 18세기말의 풍속도에서 내외용 쓰개를 일별해 보면, 좌우 대칭의 깃과 이중 싹, 겨드랑이의 삼각무 등, 특징적인 형태의 의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준하여 출토 유물들을 분석해 보면 남녀 모두에게 장의로 분류되는 의복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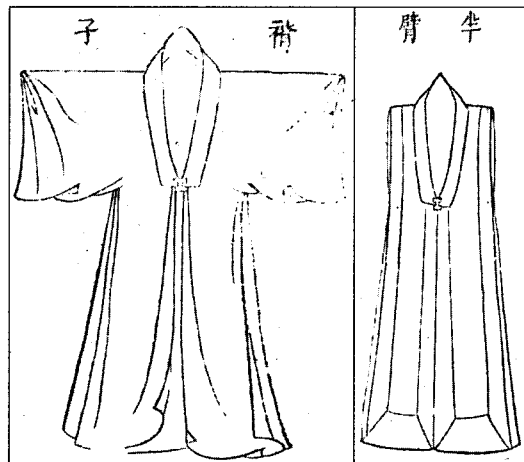
이로써 長衣는 조선초기에는 남녀 袍의 용도로, 후기에는 여자에게는 쓰개의 용도로 변화되고, 남자는 英祖의 소렴과 粹宮衣襟, 正祖의 습·소렴시, 純祖의 粹宮衣襟⁵⁶⁾에 나타나고, 정조 원년 3월의 기록에는 유생의 喪服⁵⁷⁾으로, 『邊例集要』⁵⁸⁾에는 평민의 외출시 겉옷으로도 나타나는 바, 남자에게는 의의의 하나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조선후기 남자의 장의 착용에는 유물이나 사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후기 여자의 쓰개로 변한 長衣는 개화기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진출에 앞장 선 신여성들과 전도부인 그리고 학생들⁵⁹⁾에서부터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변화하는 사회 속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단 제주도에서는 장의가 혼례복인 동시에 수의

로도 중요시 여겨 1960년 전후까지도 쓰개가 아니라 예복의 하나⁶⁰⁾로 사용되었음은 특이한 지방색의 하나로 여겨진다.

2) 背子[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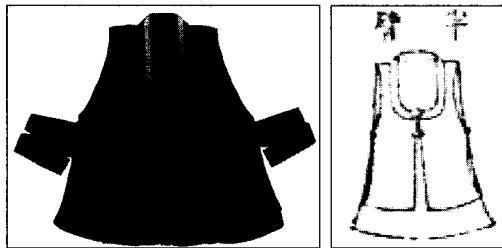
조선시대 배자는 여자에게는 太宗 八年 五月 癸酉에 宮主의 喪服으로 등장하고⁶¹⁾, 世宗 오레 흥례 의식에도 六尙 이하의 女官의 喪服으로 기록⁶²⁾되는 등 喪禮시 사용되었고, 祭禮⁶³⁾ 준비 시 主婦의 의복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황제가 내외명부에게 하사한 관복⁶⁴⁾에서도 배자가 포함되어 있어 관복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배자는 英祖 23년 8월에 先朝가 靜攝하는 가운데 신료를 인접하실 때에는 배자(褙子)를 입었다는 기록⁶⁵⁾이 있어 평상시 예의를 갖추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景宗(1724)의 案粹宮衣襟置簿⁶⁶⁾에 기록되고, 英祖 小殮時와 案粹宮衣襟置簿⁶⁷⁾에, 正祖 小殮時⁶⁸⁾에 기록되어 있는데, 葬禮時 평상시에 입었던 의복을 넣는 풍습으로 볼 때 18-19세기 배자의 사용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외 국말 『의복불기』⁶⁹⁾에도 다양한 衣次의 배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배자는 남녀모두에게 사용되었으나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있어 의례적인 면이 강조된 의복임을 알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중국의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圖 3> 褙子 三才圖會(四)

<圖 4> 半臂 三才圖會(四)

배자는 『三才圖會』에 소매가 있고 對襟形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圖3 참고), 조선시대 배자의 형태는 『四禮便覽』⁷⁰⁾에 색이 있는 명주와 견을 사용하여 만들며 깃을 맞대고 옆을 터놓으며 소매는 둥글게 하는데, 반팔로 하거나 소매가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배자의 사전적 해석은 ‘저고리 위에 입는 의복으로 소매와 섹, 고름이 없으며 깃은 對襟형이고 좌우 길이 맞는 옷기’⁷¹⁾이라 하여, 無袖對襟形으로서 『三才圖會』에 제시되어 있는 半臂와의 공통점이 발견된다.(圖4 참고) 실제로 圖 5의 국말 남자 배자의 형태는 반비로 기재되어 있는 圖 6의 형태와 유사한 것을 보면, 점차 반비와 배자는 동일한 형태의 의복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圖 5> 박쥐문단 배자 (19C말) / 『服飾』, 이화여자대학박물관, 1995
 <圖 6> 半臂 純祖 戊子(1827) 『進爵儀軌』



<圖 7> 石泉閑遊 (金喜謙, 1748) 『한국의미』, 중앙일보, 1985

여자의 배자에 관해서 조선 숙종에서 영조대의 宋文欽의 『閑靜堂集』에는 斜領形에 소매가 길고 옆이 봉해지지 않는 ‘長背子’와 그 길이를 짧게 한 ‘短背子’가 있었으나, 송문흠의 在世 당시인 18C 중반에는 半臂(圖4 참고)가 짧아진 것을 일반적으로

배자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²⁾(圖 7참고)

조선시대 배자는 이처럼 용도·형태에 있어서 남녀 성별의 차이가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왕부터 서민 남녀까지 보편적으로 착용되고 그 형태에 있어서도 無袖·對襟形에 길어도 짧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자용 배자는 저고리 길이에 맞춰 더욱 짧고 옆트임이 없고, 남자의 배자는 양복의 영향을 받은 조끼로 대체되면서 점차 그 사용례가 줄어들게 되었다.

3) 두루마기[周衣]

두루마기란 ‘두루 막혔다’는 뜻으로 한자어로는 ‘周衣’라고 하며, 周防衣, 周遮衣, 周莫衣⁷³⁾ 등 몇 가지 동의 표기가 사용되었다. 남자가 평상시에 입는 조선의 고유한 옷옷으로 남자는 사철 입으나 여자는 추울 때만 입는 의복⁷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루막의’라는 한글 표기는 1795년으로 추정하는 『重刊老乞大諺解』⁷⁵⁾에 ‘袍子 두루막이’와 1804년 『兪學編』⁷⁶⁾에 ‘襖 두루막이 오’라고 표기된 데에서 그 사용례를 확인 할 수 있으나, 周衣라는 표기는 영조⁷⁷⁾이후의 기록에서 보이므로, 이 즈음 이미 한글 표의 두루마기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이를 周衣라는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상으로 보면 두루마기는 두루 막힌 고대 우리의 袍에서 유래 된 것으로⁷⁸⁾, 상고시대 이래 시대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어 사용되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두루마기라는 명칭으로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개화기에 이르면 이전의 많은 袍들은 두루마기[周衣] 하나로 집약되면서 상하계층에서 사용하게 되는데⁷⁹⁾, 기록에 의하면 광무 2년(1898년) 이전부터 부인들 사이에도 이미 입혀지고 있었으니⁸⁰⁾, 여자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두루마기는 내외용 쓰개였던 장옷을 대신하여 外衣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두루마기는 조선시대 남자의 袍에서 여자의 袍로 확대 착용됨으로써, 남자에게는 다른 袍制에 비해 비교적 신분표현의 기능이 적은 평상복의 의의로서, 여자는 방한용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현재까지도 남녀의 外衣類로 입혀지고 있다.

IV. 결 론

조선시대 의복의 명칭을 상고시대의 襦·袴·袍에 준하여 상의류, 하의류, 외의류로 나누어 그 명칭들의 분화·발달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의복 명칭들 중 남녀가 명칭을 공유하며 함께 착용한 의복들을 男女共用衣服이라 정의하여 어원과 형태, 착용양태 등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와 함께 그 특징이 나타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선시대의 상의류를 지칭하는 명칭들을 보면 특히 여자의 상의류를 지칭하는 명칭이 대단히 많고 남자의 상의류 명칭은 여자의 다양한 상의류 안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어, 여자의 상의류가 남자에 비해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의류의 명칭에서는 여자의 하의류에서 일반적으로 속옷을 지칭하는 '裏衣'라는 용어가 일찍 등장하고, 속바지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지가 이미 여자에게는 치마 속에 입는 속옷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의류에서는 남자의 외의류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함에 비해 여자의 것은 남자의 다양한 외의류에 포함되어 그 중 일부로 나타나고 있어 남자 외의류의 종류별 분화가 여자에 비해 월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男女共用의 衣服名은 상의류에서 赤古里, 汗衫, 衫兒, 赤衫, 胴衣襟, 고도(古都), 하의류에서 袴, 禪子, 바지[把持, 把赤], 외의류에서는 長衣, 背子, 周衣로 구분되었다.

저고리는 조선 초부터 '赤古里'로 표기되고 있으며, 점차 '저고리(저구리, 저고리)'라는 한글표기와 혼용된 후 19세기말을 전후로 한글 표기가 좀 더 일반화되면서 남녀에게 모두 사용되는 상의류의 일반 명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汗衫, 衫兒, 赤衫은 남녀에게 홀으로 된 속옷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글로 명칭이 표기되면서 이 세 용어는 적삼으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고도는 적삼의 일종으로 바느질 방법의 차이에서 생겨난 의복으로 생각된다.

袴, 禪子, 바지는 조선시대 문헌에 표기된 남녀 공용명칭으로 이러한 명칭들은 조선말에 '바지'로

통일되어 나타나는데, 남자는 겉옷을, 여자는 속옷의 일부 의복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長衣는 곧 장옷이라 하여, 일반적으로는 조선조 여자의 내외용 쓰개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으나, 조선초·중기에 남녀의 袍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남자는 다양한 袍制들 속에 점차 사라지고, 여자는 쓰개의 용도로 변화되어 국말까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背子는 朝鮮 쏘시기에 남녀에게 사용되었으나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보다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되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왕부터 서민 남녀까지 보편적으로 착용되었는데, 이시기의 배자는 無袖·對衿形으로 집약되고 길어도 짧아지게 된다. 周衣(두루마기)는 '두루 막혔다'는 뜻의 한자 표기로 周防衣, 周遮衣, 周莫衣, 防衣의 동의표기를 가진다. 이는 古制에서 비롯된 전폭이 두루 막힌 형태로서, 평상시 입던 袍의 한 종류로 정의될 수 있고, 남녀 상하계층간에 두루 착용됨으로써 의례적인 성격을 띤 다른 袍制에 비해 신분표현이 적었던 의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남녀공용의 의복명칭을 중심으로 형태·용도의 특징을 보면, 의복의 형태에서는 상의·하의는 남녀가 서로 다르게 변화되고, 외의류에서는 남녀의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게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용도에서는 친의류에 속하는 적삼, 삼아, 한삼을 제외하고 저고리는 남자의 받침 옷으로 여자에게는 겉옷으로, 바지는 남자의 겉옷, 여자의 치마 안에 입는 속옷으로 사용되어 남녀에 따라 용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 외의류에서도 주로 여자는 방한용과 내외용으로 사용한 반면 남자는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특징적인 변화의 요인을 조선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는 조선의 사회적 성격은 男女共用衣服의 형태와 용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혼란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낸 임진·병자의 양란은 남녀바지의 형태의 변화, 용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계층으로서의 기녀들은 그들만의 유행을 상류사회에 전파하여 저고리길이의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속옷류로 분화한 여자의 바지는 겉에 입은 치마의 실루엣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유교적 사상에 맞선 실학사상과 국말의 개화사상은 의류의 간소화와 더불어 男女共用 외의류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문헌 및 유물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복의 명칭 유형 및 유래에 관해서는 고찰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추후 古蒙古語 및 외래어, 조선시대 언어에 관한 연구에 의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황춘섭 (1999).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pp. 35-36.
- 2) 황유선 (1999).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춘순 (1991). 바지고: 바지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과정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두이 (1988). 배자의 양식변천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숙 (1996). 長衣의 변천 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남옥 (2001). 조선시대 복식변천에 나타난 동조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6). 한국한자어사전(3). 단국대출판부. p. 65.
- 4) 고복남 (1986). 한국 전통복식사 연구. 일조각. p. 24.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67.
황유선 (1999). 앞의 글, p. 98.
-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고문서집성(12)-장서각 편Ⅲ-. pp. 42-46/ p. 71 덩스둥지무오경도옹주아기시 의복불귀 / p. 78 무오스월옹주아기시심신의복불귀.
- 6) 喪肚는 『喪禮備要』에 '所以喪腹者'라 하여 의 하나로 배를 싸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國王 및 后妃의 喪事時 일반적 의식을 기록한 『빈전도감의궤』·『빈전혼전도감의궤』·『빈궁혼궁도감의궤』에 남녀 모두에게 소용되는 喪禮用의 한 품목으로 기재되고, 국말 『내안당이귀인상수의침공가불귀』에도 여자 壽衣 중 한 품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 7) 황유선. 앞의 글, p. 23.
- 8) 구남옥 (2001). 앞의 글, p. 141.
- 9)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6). 한국한자어사전(1). 단국대학교 출판부. p. 859.
- 唐: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임을 나타냄.
諸橋徹次 (1984). 大漢和辭典(2). 東京: 大修館書店. p. 1022.
- 唐: 허풍, 과장된 말/ 늙은, 큰
- 10) 박성실 (1996). 回裝赤古里와 肩尔只 再考. 菊堂 孫敬子 教授 퇴임기념논문집 별채본. p. 2.
- 11) '裏衣'는 『가례도감의궤』에 '단니의(單裏衣)'는 『件記』의 기록에 치마와 함께 기록되어 속치마 또는 속바지로 해석하여 異見을 보이고 있으나 『件記』의 기록에 잔누비단니의, 쟁겹단니의, 핫단니의 등의 명칭으로 보아 속치마보다는 단속곳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12) 김영희 (1998). 전통 내의 문화에 관한 연구 -여성바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3.
- 13) 이은주 (2001).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 pp. 34-35.
-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p. 21.
- 15) 김동옥 (1973).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pp. 12-13.
- 16)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세종2년 9월13일.
- 17)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成宗22년(1491) 五月四日.
- 18) 장인우 (2002). 조선중기 의생활 어휘에 대하여 - 순천김씨묘 언문간찰을 중심으로-. 복식, 52(3).
- 19) 번역 노걸대의 편찬시기는 문헌마다 다르나, 대체로 1600년대 초기임을 알 수 있다.
- 20) 譯語類解 (1974). 아세아문화사. p. 91.
- 21) 四禮便覽. 襲衣 諸具, '袍襖: 俗稱(赤古里)三稱'.
- 22) 民族文化推進會 (1966). 五洲衍文長箋散稿, 衣服裁縫辨證說, '襦短衫 俗稱赤古里 單者曰赤衫也'.
-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p. 23: 덩미(1907) 가례시호의디불귀. / p. 119 을히이월십칠일좌의덩디감회갑의복차불귀.
- 24) 譯語類解 (1974). p. 309.
- 25) 諸橋徹次 (1984). 앞의 책, p. 181.
- 26) 家禮考證 卷6, 喪禮, 汗衫 '...高祖與項羽戰汗透中單改名汗衫貴賤通服之以此觀之則汗衫者蓋親身之單衣也'.
- 27) 譯語類解 (1974). p. 90.
- 28) 이기문 (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p. 219.
- 29)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p. 133.
- 30)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일조각. p. 24.
- 31) 온양민속박물관 (1991). 1302년 아미타 佛복장물의 조사 연구. p. 91.
- 32) 한국정신문화원 (1995). 17세기 국어사전(하). 서울: 太學社. p. 2339.
- 33) 老乞大. 朴通事譯解 (1973). 亞細亞文化社. p. 53.
- 34)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1988-2001). 한국복식. 단국대출판부.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서와

- 이응태묘 발굴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포항 내단리 장가 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35) 황유선. 앞의 글, p. 85.
36) 장인우. 앞의 책, pp. 6-7.
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p. 87
38) 위의 책, p. 105.
39) 김용숙 (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pp. 291-292.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82.
41)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광해6년 7월(갑술)./ 인조1년 10월(기축)./ 인조 16년1월(을유)./숙종4년 8월(갑술).
42) 李能和 (1973). 朝鮮女俗考. 서울: 대양서적, p. 59. 신랑의복에 관해 ‘…白苧複褌자와 細布裡衣單褌자와 細作白木新襪자와 白苧布筒行纏과…’. 신부의복에 관해 ‘…白苧布四幅褌자와 細細北布鮒魚褌자와 眞紅縹紗複褌자와 藍方細細單褌자와…’.
43) 김동욱 (1973). 앞의 책, p. 15.
44)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世祖 五年三月十五(丁酉).
45)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成宗 10年閏10月甲寅.
4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6). 한국한자어사전(2). 단국대학 출판부. p. 528 ‘把赤: 把持와 같다’.
47) 장인우. 앞의 책, p. 7.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p. 14. / p. 21.
49) 구남욱 (2002). 조선시대 남자바지에 관한 연구. 복식, 52(7), pp. 45-56.
50) 民族文化推進會 (1966). 五洲衍文長箋散稿(卷四), 衣服裁縫 辨證說.
51) 김영숙 편저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 320.
52)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世祖 2년 3월 丁酉.
53)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中宗 17년 8월 乙酉.
54) 이규경 (1966). 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衣服裁縫 辨證說. ‘帽衣 -作裙衣 披衣不帶也 宮女至庶人婦女出外被單衣於頭其長等身也장옷’.
55) 韓國文化人類學會 編 (1967). 韓國文化人類學叢書, 京都雜誌/柳得恭, 撰. 서울: 韓國文化人類學會. / ‘閭巷婦女綠袿衣 在街上另用衣冪首’.
56)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앞의 책, 영조 52년 3월9일/ 정조 24년 6월 29일/ 순조 34년 11월17일.
57)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앞의 책, 正祖 원년 3월16일 (丁亥).
58) 邊例集要, “府使 서유런 때 울산 漂民을 거느리고 온 差倭가 晝契를 가지고 나왔다. 표민이 입은 木棉長衣는 長崎島에서 만들어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례에 위배된다 …(1802)”.
59) 김미자 (1989). 개화기의 여자복식과 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8호, p. 422.
60) 고부자 (1995).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88-97.
61)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앞의 책, 太宗 八年五月癸酉.
62) 위의 책, 世宗 五禮儀 凶禮.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女官)은 참취 삼년(斬衰三年)이니, 배자(背子)[본국(本國)에서 몽두의(蒙頭衣)를 사용하는데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재취 기년(齋衰期年)이니,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63) 家禮諺解(卷之十). 祭禮, 十喪면, ‘…主婦는 모든 婦女를 거느려 背子 납고 祭器를 싣고…’.
64)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앞의 책, 中宗 十三年四月己丑. ‘…其冠服物件 則珠冠一頂 大紅紵絲夾大衫一件 靑紵絲縹縹圈金翟雞夾背子一件 靑綠羅縹縹圈金翟雞霞帔一件…’.
65) 위의 책, 英祖 23년 8월 甲子.
66) 國史編纂委員會 (1961). 承政院日記(第五七二冊), 景宗 四年甲辰八月.
67) 國史編纂委員會編 (1970). 앞의 책, 英祖 52년 3월 9일.
68) 위의 책, 正祖 24년 6월 29일.
6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p. 65. / p. 98.
70) 四禮便覽(卷1). 冠禮服陳. ‘背子用色紵或絹爲之長與裙齊對衿開裳或半臂或無袖’.
71) 김영숙 편저. 앞의 책, p. 187.
72) 宋文欽著. 閑靜堂集(卷七). 雜著 八, ‘… 其所爲長背子. 引爲長袖. 兩裾相掩. 兩腋不縫者. 與今丈夫長襦略同. 稍短之則當爲短背子. 卽今之唐衣也. 其半臂者. 與今之掛子略同. 但掛子兩裾直垂爲異. 其半臂而短者. 卽今之背子也…’.
7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6). 앞의 책, p. 845.
74) 조선어사전 간행회 (1943). 조선어사전. 영창서관. p. 450.
75) 重刊老乞大諺解. 흥문각. 1984. p. 228
76) 정약용. 兒學編. 규장각 소장. p. 29.
77) 國史編纂委員會 (1961). 承政院日記(77). pp. 97-98. / ‘藍扇緞狹袖周衣, 軟藍宮綉狹袖周衣’.
78) 김동욱 (1985). 백제의 복식. 백제문화발전연구원. p. 48.
79) 김미자. 앞의 책, p. 409.
80) 위의 책, p. 409.